



扶安林氏金浦宗報

창간호
2015년 11월 20일

◎ 발행일 : 2015년 11월 20일 ◎ 발행인 : 임종호 ◎ 편집인 : 임종상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729-1 ◎ Tel : 010-4734-8002

김포종회 종보 창간호를 내면서



부안임씨 김포종회 종보 창간을 모든 종친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지목(根深之木) 풍역불울(風亦不揺)

원원지수(源遠之水) 한역불갈(旱亦不竭)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아니한다.”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우리 임씨는 세계최초의 국가인 殷(은)나라 왕조

(기원전1,600여년)의 가문으로 比干公(비간공)을 태시조로 모시고 그의 아들 林堅(임견)을 득성 임씨 始祖로 삼고 있습니다.

후손인 당나라 구목중의 6번째 아들인 林蘊(임운)을 거쳐서 그의 4세손인 翰林學士 林八及(임팔급)선조님이 신라로 동도하셔서 韓國林氏(한국임씨)의 시조가 되셨고 임팔자급자의 7세손인 임계미께서 우리 부안임씨의 시조가 되십니다. 季(계)자 美(미)자 계서는 서기 1030년 고려 현종때 문과에 급제하신 후 평장사로서 관직이 금자광록대부 벽상삼한 삼중대광 태사에 이르고 평원보안군 봉작과 함께 보안백에 봉함을 받아 이로 인하여 부안에 임씨 관행을 삼았다고 합니다.

우리 임씨는 3,600여년의 전통과 핏줄을 이어온 뿌리 깊은 나무이고, 샘이 깊은 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조상에 대한 열을 한번쯤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고, 현재 없는 미래는 아무런 의미와 발전이없는 砂上樓閣(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경제학자는 살아남고 싶다면 과거를 돌아보고 현실을 직시하라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김포 종회는의 중중 모든 재산을 김포 중중회 명의로 등기 완료하였으며 검단묘막을 비롯한 모든 임대부동산을 임대차계약서로 체결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재산관리를 하며 보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사의 안전은 분기별로 진행하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총회의 주인을 받아 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임 회장님들과 원로 어르신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하여 분기별로 오찬을 함께하며 자문회의를 겸하여 현안에 대한 고견을 청취하고 친목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임씨는 원대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미래를 이끌 지도자와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나와 가문이 더욱 번성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모두가 함께하고

친목과 단합을 통한 중장기 로드맵이 있어야 합니다.

부안임씨 김포종회는 2년전 청년회를 조직 하였고 젊고 참신한 젊은이들이 종사에 참여 할 수 있게 길을 안내하고 있으며 같이 참여할 수있는 젊은 종친회원들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어려운 불우종친 돕기와 어려운 학생들을 찾아 장학금을 지급하여 종친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찬조를 통한 자금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뜻있는 종인들의 자발적 참여와 어려운 종인과 학생을 추천 바랍니다.

또한 추모공원을 허가받아 600여평의 묘역을 1단계 조성하여 종친들께서 어려움이 있을 때 편리하게 이용 하실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변 6천평 부지에 잣나무, 백합나무, 유실수를 3천여주 를 식재하여 수종개량 하였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멋진 추모공원이 되어 선영과 사당(유존각) 그리고 납골당과 함께 조상님들의 평온한 안식처와 성지로 발전되고 묘역을 찾는 후손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휴식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하공 묘소에 문학비를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고전 문학사의 대문호이자 우리 후손들의 자랑과 자긍심인 서하공 묘소에 문학비 하나가 없다는 것에 우리 종인들의 뜻을 모아 문학비 를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부안임씨 중앙회 회장을 김포종회장인 본인이 맡고 있으며 전서공파, 판서공파와 의 유대를 강화하며 서하 문학비 건립에 함께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또한 전국 임씨 중앙회에도 적극 참여하여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며 매년 중국에서 열리는 비간공 시제에도 우리 종인들을 2~3명씩 참관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사에 참여치 않은 종인들께서도 종사에 참여하시어 위대한신 선조님들의 고귀한 유지를 대대로 계승하는데 동참하시고 빛내는데 자손의 도리와 보은의 정신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창간호를 총괄기획하신 임종상 부회장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부안임씨 김포종회가 날로 번창 할 수 있도록 창간 종보를 통해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2015년 12월

부안임씨 대총회장 임종호



뿌리는 바꿀 수 없다

부안 임 씨 밀직공파 김포 종친회 회 장 임 종 근



희망과 번영의 乙未年 새해가 밝은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가고 있군요! 종친여러분 그간 안녕들 하셨는지요?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종친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충만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하시고 희망이 성취되시기를 축원 합니다. 이번 부안 임씨 밀직공파 김포 종중에서 우리 종인 여러분들에 종인으로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회보를 발간함에 열열히 환영 하며 축하 합니다. 우리 임씨는 전국 성씨별 인구 순위 10위권이고 자손이 무려 100만여 명에 달하고 있는 명문대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종친여러분들께서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우리 부안 임씨 김포 종친이 더욱더 발전 하면서 100만 가족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슬기와 자혜를 모아야겠습니다.

특히 우리 씨족 문화를 더욱 승화시켜 상부상조 하면서 명문 가족의

명성을 이어가는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뿌리는 바꿀 수 없다. 부안 임씨 밀직공파 김포 종인들께서는 시조 林 八 及 忠節公의 18대손 계정(한림학사) 씨의 작은 뿌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종친들 여러분께서도 종중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종중 및 종친회 발전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종친회에서는 종인들과 친목 행사로 관광 이외 사업은 하지 못 하였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포 종중에서 종인들을 위하여 추모 공원을 조성하여 앞으로 종친회에서 관리토록 2/4분기 종중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으므로 추모공원 관리규정을 확인 하시어 장례문화를 발전성 있게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조상의 숭고한 일을 본받고자 하오니 종인들께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운영규정은 부안 임씨 밀직공파 김포 종중 추모공원 관리규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중 및 종친회가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모두 주인 정신으로 종사일에 적극 참여 많은 협력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종친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종회 연혁

우리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종회는 초대 임인기회장님과 임용하, 임중기, 임용득회장님 이후 2011년 12월부터 현재 임종호 회장님을 중심으로 임원명부와 같은 조직으로 김포에 뿌리를 둔 밀직공파 종인들을 회원으로 운영하며, 종중운영의 체계화와 투명성을 위하여 모든 안건은 분기 1회의 정기이사회와 임시회의에서 상정하여 토의하고 결정하며 년 1회 총회에서 중요안건의 결의로 운영한다. 서하공, 학사공을 비롯한 선조묘소의 관리와 제향을 모시며 종중 재산을 보호하고 종인들 간의 친목과 단합을 통하여 종회의 발전을 목적으로 노력한다.

2012년 7월 청년회를 발족하여 회장에 임종훈님을 모시고 단합행사 및 신입회원 증가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현재 임종광님이 2대회장에 취임하였다. 또한 2012년 2월 종중회의에서는 불우 종친돕기 와 불우학생 장학금지급행사를 시작하여 대학생1명과 중고생 2명에게 장학금 지급과 불우 종인에게 금일봉을 전달하여 종인돕기에 나섰다. 그때 한미약품의 임성기회장님께서 현금 500만원 과 약품 등을, 임종호회장님 과 임종훈 청년회장께서 각100만원씩을 성금 하셨다.

또한 남골묘역 주변으로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신청하여 2014년에 김포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현재 종인들이 이용 중이며 산림청의 후원으로 공원주변 유실수와 관상용 묘목 3천여주 를 지원받아 수목을 개량 하였다.

유존각(사당)을 중심으로 선영과 추모공원, 남골당을 연계하여 우리 종중의 성역화 와 참배하는 종인들과 후손들의 편리한 휴식처가 될 수 있게 조성하고 있다. 검단의 서하공 묘소 정비사업 과 문화비 건립의안이 결의되어 임종철(한미약품)이사를 추진위원장으로 하여 추진 중에 있다.

서하공묘소 아래 회의실 및 2층 주택(묘지기 거주)을 정식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으며 종중의 모든 재산을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종회 명의로 등기완료 하였다.

종중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종인들은 선대의 훌륭한 업적과 유지를 발굴 하고 발전시켜 후대에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역사적인 사명의식으로 봉사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종인들께 널리 알려 같이 참여 할수있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임씨 김포청년회

선조의 얼을 받들어 힘과 지혜로 결집!!

부안임씨 김포청년회가 발족되었습니다.

부안임씨 청년회에서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한국 10大성씨로 100만여명이 있는 큰 씨족. 그 위용을 드높이고 있는 한국 임씨. 그 중에서도 부안임씨는 1,200여년의 임씨 역사와 함께 대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부안 임씨 김포 청년회가 발족되었다.

조상의 얼과 부안임씨의 정신을 바탕으로 회원간 유대와 결속을 통해 종회원들과 친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부안임씨 김포청년회 발족 : 2012. 9. 15

◎ 임원현황 (회원수 85명)

- 회 장 : 임종광 (초대회장 임종훈)
- 고 문 : 임한기, 임종철, 임용기, 임종상
- 부 회 장 : 임병호, 임광기, 임종수, 임도연, 임정연
- 감 사 : 임성연, 임명환
- 총 무 : 임동연

◎ 설립정신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종회 선조를 중심으로 하여 봉선, 돈친정신을 함양하고 육영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구 성 : 부안임씨 밀직공파 자손으로 만 60세 이하 남자

◎ 주요사업 :

-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종회의 묘소 및 유적지 수호와 세일제 봉사에 관한 사업
- 종재 보존관리 및 수익에 관한 사업
- 도의양야와 상호돈독에 관한 사업
- 인재양성을 위한 육영사업과 기타 부대사업

가. 지속적인 부안임씨 뿌리 알리기 사업

지금의 사회는 핵가족, 호주제 폐지, 다문화가정 증가로 전통문화가 사라져가는 추세에 있어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그 정신과 마음이 오늘에 이어져 온다는 마로 청년회 사업 우선으로 부안 임씨 뿌리 알리기 사업에 주력할 것입니다.

- 운영시기 : 연2회(반기1회)
- 운영대상 : 부안임씨 밀직공파 후손(초,중,고,대학생 중심)
- 운영방법 : 특강(종친대표), 선열묘소현장답사, 후손에 대한 족보교육, 장학금 지급 등

나. 서하(西河) 임춘(林椿) 할아버님 묘소개선 및 문집발간 사업

“서하공 임춘 할아버지의 문학사적 위상과 정신을 되찾아드리는 일은 우리 후세손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청년회 임종철 고문) 고려 명종때 대 문장가 서하공 임춘 할아버지의 문학정신을 살려내는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자손의 도리로서 한국을 빛낸 100인의 위인 중 한분이시며 시, 서간문은 물론 국순전, 공방전 등 우리나라 최초의 가전체 소설로 문학적 사상이 후대 선양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 발간시기 : 추후확정
- 발간방법 : 묘소개선 및 문학비 건립을 우선 추진하고 문집발간 사업에 전력 할 것임

다. 청년회 단합(체육등산) 행사와 가족동반 시제 참여하기

- 운영시기 : 단합행사 연2회, 시제참여 연2회
- 참석대상 : 종회 고문, 청년회, 부안임씨 가족 등
- 운영내용 : 부안임씨 가족단결 및 세대 간 얼굴 알리기 조상의 얼에 대해 후손에게 현장교육 등



부안임씨 김포종중 임원명단

직 책	이 름	전화번호
고문	임용득	010-6325-2895
고문	임중기	011-9892-0405
고문	임중학	010-8387-1477
고문	임종철	010-2588-0563
문장	임병인	010-4711-3914
종손(부회장)	임병일	010-5470-0163

직 책	이 름	전화번호
회장	임종호	010-4734-8002
부회장	임종근	010-5328-9205
총무이사	임도연	010-9553-9369
이사	임종문	010-5270-6839
이사	임종수	010-2388-8840
이사	임한기	010-6237-2978
이사	임충실	010-3396-3394
이사	임용혁	010-3718-6549

직 책	이 름	전화번호
이사	임종상	010-5343-3441
이사	임종훈	010-3792-2132
이사	임종선	010-2287-0945
이사	임찬기	010-9023-5693
이사	임종철	010-5340-4954
이사	임종광	010-7600-8082
감사	임문기	010-8519-1773
감사	임종철	010-2327-2974

【先系】(선계)

1世
八及
(忠節公)
팔급
(충절공)

2世
良貯
(太師公)
양저
(태사공)

3世
斌
(忠烈公)
무
(충열공)

4世
僖
(忠肅公)
희
충숙공

5世
晃
황

6世
得雨
득우

7世
夢周
(忠宣公)
몽주
(충선공)

1世
季美
文憲公
계미
(문헌공)

2世
元
(원)

3世
厚
(후)

4世
彦
(인)

仲幹
중간

宗庇
종비(자)

民庇
민비(자)

光庇
광비(자)

樁
춘

忠世
충세

敬世
경세

淑
숙

大光
대광

密直公派
밀직공파

蘭秀
난수

典書公派
전서공파

扶安貫
부안관(만)

大光
대광

得成
득성

繼楨
계정

哲孫
철손

元年
원년

士彦
사언

百春
백춘

兆春
조춘

斗南
두남

應南
응남

慶南
경남

整世
정세

澤
택

判事公派
판사공파



고문 임중학



비간공(比干公)과 득성 林氏

比干公은 殷나라 太丁大王의 둘째 아드님이시고 紂王의 叔父입니다. 마지막 왕인 주왕의 폭정으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비간공은 조카인 주왕에게 폭정을 만류하다 죽임을 당하셨다.비간공이 죽음을 당하자 정부인 진씨는 임신중에 長林山으로 피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泉이라 이름을 지었다.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건국하자 무왕은 비간공의 아들 천을 찾아서 장림산에서 출생하였으니 성을 林氏라 하고 튼튼하게 자라라는 의미로 이름을 堅이라 고쳐 부르게 하였으니 이분(林堅)이 우리 수풀임씨의 시조가 되시고 선친 比干公을 太始祖로 모시게 되었다



온공(蘊公) (임견의 80세)

피공은 아홉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모두가 급제하여 “자사”가 되었다. 그중 여섯째 아들로 천주 보천에 살으셨다. 공은 한국임씨 도시조 팔급공의 고조부 이시며 구목연파의 제 육방의 시조가 되신다. 공은 우리나라 족보에 원조 또는 시조로 기록되어있고 “서하문집의 중추회음서”중에도 기록되어있다.(북건성에 묘소가 있음)



충절공 임팔급 (忠節公 林八及)
(임견의 84세. 한국임씨 도시조)

충절공은 당나라 말엽에 18세에 등과하여 翰林學士를거쳐 병부시랑 예부상서로 있을때 간신배들의 모함을 받아 팔학사와 함께 북건성 천주시 평성에서 신라로 망명하여 평택의 평성에 정착하여 농성을 쌓고 정주하였다.

한국임씨의 도시조이신 임팔급께서는 신라의 이부상서로 계셨을때 적병이 변방을 침입하므로 공은 분연히 토벌하여 위난을 평정한 공훈으로 평성군에 봉해지고 신덕왕조로부터 忠節公의 휘호를 받았다.

전국 임씨중앙회의 노력으로 문헌의 기록과 농성의 유적을 바탕으로 평택시에서 복원하여 임씨세거지 농성근린공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충절공의 동상이 세워졌다. 또한 중국의 출항지인 북건성 평성촌에 한글과 한문의 기념비석을 2004년에 한중 합작으로 “한국임씨 도시조 충절공 임팔급 도해처 기념비”를 세웠다.



문헌공임계미文憲公林季美
(임견의91세. 임팔급의8세. 부안관시조)

扶安林氏 得貫祖이신 季美公은 高麗朝에서 文科에 登第後 門下侍郎平章事를 하시고 壁上三韓 太師에 이르렀으며 平原府院君에 爵位와 함께 保安伯에 封함을 받아 이로 하여금 貫鄉을 삼았다고 文獻으로 傳한다. 또한 錦城世家遺蹟에는 「文科及第하여 壁上三韓 太師로 平原君에 이르시였음이 關西譜에서 나왔다」라고 記載되어 있다.

서기 1030년 고려 현종시에 文科에 及第하여 平章事로써 官職이 金紫光祿大夫 壁上三韓三重大匡 太師에 이르고 平原保安君에 封爵되었다.

扶安林氏의 得貫來歷은 季美께서 保安君에 봉하신 때문에 우리 貫鄉이 이때부터 扶安으로 비롯되어 扶安林氏의 一世祖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 扶安의 地名이 朝鮮朝 太宗 十六년 서기 1416년에 원래의 부령현과 보안현을 병합하여 扶安으로 개칭되었다. 이런 점으로 보아 扶安의 貫鄉을 麗末에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서하공 임춘 (西河公 林椿 부안관 7세)

부친(父親) 휘(諱)는 광비(光庇)니 좌의정(左議政)에 시호는 문정(文貞)이요 모친은 나주오씨(羅州吳氏) 순군(循軍) 부령(部令) 효석(孝碩)의 따님이다.

공(公)은 나면서부터 영특해서 육(六) 칠(七)세에 많은 글을 깨우쳤으니 타고난 문장(文章)이 오묘한 지경에 이르렀고 성리종회(性理宗會) 삼재상수(三才象數) 등(等) 서수십편(書數十編)을 지었다.

의종조(毅宗朝)때 진사(進士)에 오르더니 정중부(鄭仲夫)의 난(亂)을 피(避)하여 예천(醴泉) 지과리(知過里)로 옮겼고 그 당(堂)의 이름을 희문「喜聞」이라 하고 한가히 임천(林泉)에 조섭하며 도학(道學)을 강론(講論)해 후학을 일깨우므로서 혼신(渾身)의 노력을 다했다.

당시의 현사(賢士) 이인노(李仁老) 오세재(吳世材) 조남통(趙南通) 함순(咸淳) 황보항(皇甫沆) 이담지(李湛之)로 사귀어 함께 강좌칠현(江左七賢)이 되었고 향년(享年) 삼십삼(三十三)세에 졸(卒)하니 묘(墓)는 경기도(京畿道) 김포군(金浦郡) 검단면(黔丹面) 마전리(麻田里) 가련산하(佳連山下) 사자봉(獅子峰) 남록(南麓) 임좌(壬坐)의 언덕에 있다.



밀직공 임대광 (密直公 林大光 부안관 10세)

扶安宗系는 三派로서 敬世는 文科로 匡靖大夫僉議贊成事 上護軍判民 部事에서 左相에 이르렀다. 이가 淑과 澤을 生하니 淑은 純誠甫節佐 理功臣으로金紫光祿大夫守司空上柱國保安伯에 封하여 領上에 이르니 諡는 恭惠이다. 이가 四子를 두니 之栩와 熙載와 大光과 蘭秀이다.

大光은 密直使權城翊衛甫節功臣으로 三重大匡保安君에 封하고 輔國崇祿大夫 領議政에 이르렀다. 後孫들은 전남 고흥과 벌교 여수와 경기도 김포에 세거하며 宗稱은 密直公派라 한다



학사공 임계정 學士公 林繼禎 (부안관 12세)

학사공 임계정은 서하공의 현손인 밀직공(밀직공) 대광(대광)의 손이다.유생시 牧陽村의 門下生으로 학식이 출중하며 품성이 강직하고 당시 士林의 모범이셨으니 강직한 국가관이나 忠誠心은 天賦의으로 他의 추종을 불허 할 만큼 忠과 義를 생각하는 마음가짐은 학사공 계정의 성품까지 이어져 맥을 같이하고 있다.

고려가 망해가는 시기에 한림학사를 하셨으니 민유, 주우, 동 세학자가 개경을 등지고 祖江나루를 건너 金浦 通津에 자리잡았으니(공양왕 洪武二十二年) 세분이 통진의 三學士이십니다. 조선의 등국과 인한 민심의 무마책으로 러조의 구신들에게도 동판의 명목으로 학사공에게도 한림학사, 장단교수及 안변부사를 제수하셨으니 출사에 불응하셨고 유유자적하며 세학자와 더불어 두문불출하며 時書酒를 벗삼아 은둔생활을 하시었습니다.

공덕비

임재호

서하공의 휘는 춘이요 시는 절이니 유림설조형사지 처가오개소나 있느니라 공의 묘소를 년대조차 요요 불문인데 수 백년간을 실전하여 꺾사폐향을 하였다 함은 공의 후예된 본의로서 어찌 부끄럽지 안으리오 서하공의 십팔대손인 개곡리종인으로서 휘는 재호요 일생포한이던 실전한 선영재심을 실현코저 불철주야 일심정려하여 공의 문집에 기재된 묘는 김포군 가연산 남암사 동구혈유지원이라 명확히 기재되었음을 가슴에 품고 십여차 당지를 동찰하였지만 석물이 사방에 쓰러져 있음을 보아 분명히 실전선영임이 틀림없음을 짐작하였으나 그 당시 산판은 신안·양성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신안·양성의 세력이 당당하여 안될처지에 놓여 있어서 변성하여 양가의 고용살이 사년간을 하면서 양가의 태도와 동정을 살피면서 그 사이에 이 간을 붙여 양성이현서하공 묘소에서 다투며 말하기를 이 산소가 임서하의 묘인지라 이묘를 경계로 이 북은 신씨 소유로 하고 이남은 안씨 소유로 하자는 말을 들었으며 이 내용을 양가에서 알게 되자 하은공은 죽도록 매를 맞았으며 그 당시에 하던 말을 자세히 듣고 즉시 개곡리에 가서 종인들에게 그 사실을 편론하고 종인수백인을 데리고 신안양인 입회하에서 하공묘 소주위를 파보니 과연 지식에 임춘의 배하전의 철괴를 획득하였으나 형적을 없애기 위하여 파쇄하여 다시 묻은 것이다 이로서 서하공묘소를 찾게 된 것이다 고로 우리 후손은 그 분의 공로에 보답하는 뜻에서 늦게나마 공로비를 세운다.

공의 후손 임병인은 김포종중 문장을 맡고 있다.

순국열사 임 용 우

임용우선생은 1884년9월생으로 1919년3.1만세운동을 주도하시다 1919년5월에 일본군에 의해 옥사 하셨다. 월곶면 개곡리에서 밀직공파의 후손으로 태어 나시어 구한말 통진의 창신학교에서 4년을 졸업하시고 교사로 3년간 봉직 하시다 웅진군 덕적도에 명덕학교를 설립 옥사 할때 까지 8년간 봉직하셨다.

선생은 일제에 항거하여 민족해방을 노심초사 계책하시다 1919년3월 1일 서울에서 독립선언식에 참가하고 월곶면 군하리 등지에서 면민들과 같이 독립만세를 시창하고 시위행진을 하시며 일본에 저항하시다 외경에 구금되어 35세를 일기로 옥사하셨다. 1991. 8. 15일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선생의 후손 임도연은 김포종중 총무이사를 맡고 있다.

先祖 時祭 案内

忠節公	林八及	(음) 3월 3일	충남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文憲公	季美	(음) 5월 20일	전북 부안군 보안면 상림리 (연천제)
西河公	椿	(음)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면 마전리
	敬世	(음)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면 마전리
恭惠公	淑	(음)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면 마전리
判事公	澤	(음) 5월 20일	전북 부안군 보안면 상림리 (연천제)
密直公	大光	(음)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면 마전리
典書公	蘭秀	(음) 9월 9일	충남 연기군 동면 불파미
學士公	繼禎	(음) 10월10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독골

宗報創刊을 격려하며 祝賀합니다.

전서공파 林貞喆



扶安林氏(密直公) 金浦 宗中 임원들께서 종중 발전을 위하여 종보(宗報) 창간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면서도 걱정도 되었습니다. 김포종중의 임종호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을 대부분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임원들께서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따뜻한 격려를 드립니다.

옛말에 인생은 짧고 기록은 길다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과거의 역사를 깊은 뜻으로 다시 한 번 읽어보고 심사숙고하면서 차분하게 시작하라는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보를 창간하기 시작하여 각종 宗事와 중요한 기록 등을 기록으로 영원히 남긴다면 역사가 되기 때문에 김포종중도 종사일 하나하나도 신중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先組님들의 유덕(遺德)을 찾아 기록한다면 승조정신(崇祖精神)을 일깨워 주고 조상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함을 더 한층 일깨워 주어 종친간의 상부상조 생활 속에서 오고가는 정이 더욱 돈독하여 질 것입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창간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김포종중만이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씨들의 종중들도 슬기와 지혜를 모아 창간호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종친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셔야 합니다. 김포종중에서는 우리 임씨를 대표할만한 대학자이신 西河公 林椿할아버지를 비롯한 많은 훌륭한 先組님들을 모시고 있어 후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교육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종중의 입향조(入鄉祖)이신 학사공 임계정(林繼禎)祖께서는 고려가 멸망하는 것을 원통해 하시면서 三學士와 함께 김포 통진에 자리를 잡고 후진 양성을 하며 은둔생활을 하시었으나 이성계에 의하여 수차의 부름을 받았으나 거절하며 여생을 보내셨습니다.

오늘날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종중이 크나큰 존재감을 가지고 자손들이 사회에 많이 진출한 것은 자손들이 효심을 가지고 조상님들을 모시기 때문에 선조들의 陰德이 자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종보발행과 동시에 김포종중은 종보를 거울삼아 종원간의 따뜻한 정을 더욱더 나누시고 종원 여러분들께서도 김포종중의 主人이라는 주인정신을 가지시고 종중발전에 지원과 지혜를 모아 김포 종중이 명문종중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임원들을 격려하신다면 김포종중은 더욱더 열심히 종중을 위하여 일할 것이며, 종보를 후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면 자랑스런 역사이기 때문에 자손들도 종중의 명예를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김포종보가 순조롭게 발간되어 김포종중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西河 文學碑 建立推進을 축하하며

임종상



얼마전 인터넷 블로그를 검색하던 중 매우 흥미로운 탐방기를 읽었다. 경북 예천의 한 중학생이 서하공 묘소를 탐방한 내용이었다. 그 학생은 국어시간에 배우고 있던 가전체 소설 국순전을 쓴 임춘이 학생의 선조라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들었고, 학생의 엄마와 함께 어렵게 가현산 서하공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비문과 사적비를 둘러보고 작성한 탐방기였다.

서하공은 고려 의종(명종)때 정중부의 난으로 인한 무신정권(1170)의 피해를 입으며 꿈의 좌절과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도 굳은 자존을 지키고 현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강좌칠현(죽림고회)을 이루며 품은 뜻을 문학으로 표출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가전체 소설 국순전(麴醇傳)과 공방전(孔方傳)을 저술 하였으며, 그의 고을시와 서간문등은 한국의 고전 국문학사의 큰 지표를 세우셨다.

서하공은 고려 건국 공신의 후손으로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 육칠세때 백가어(百家語)를 편독(遍讀)해서 정밀한 이치를 깨달았고 백부이신 종비로 부터 학문을 배우셨다. 과거를 보지 않고도 입신할 수 있는 신분이었지만 과거를 통한 등용으로 향우를 사로잡은 장량 처럼 제왕의 스승이 되는 것을 대장부의 참다운 사업(長劍行중에서)이라 꿈꿔왔으나 무신정권 최대의 피해를 입고 온 집안이 화를 만나 몸만 겨우 탈출하여 강남땅으로 피신하셨다. 이후 빈곤과 유랑의 삶을 겨우 이어가면서도 높은 경지의 학문과 문학은 당대 현인들로 이루어진 강좌칠현(江左七賢 임춘 이인으로 오세재 조통 이담지 황보항 함순)과 함께 정신적으로 천하의 문사 시인들과 더불어 고유했고, 불우한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서 자아 성취 의지를 문학으로 고취시켰다.

32세의 일기로 일찍 타계한 서하공을, 죽림칠현의 한 사람인 쌍명제 이인로가 서하공의 시와 서한문(편지) 글 등을 수년간 수집하여 수많은 노력과 고생 끝에 西河文集 5권을 책으로 묶어 세상에 발표하였다. 그 후 담인이라는 스님은 혼란한 정세와 전쟁등에서 서하문집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청도의 운문사 청동 향아리(보물제208호)에 복장품처럼 보관하였던 것을 6백년이 지나 인담이라는 스님에 꿈에 현몽하여, 청동 향아리를 찾아 열어보니 서하문집 5권이 드디어 세상에 다시금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후손 임재무가 구득 중간하여 널리 배포하였다. 이후 국순전(麴醇傳)은 국문학자들이 검수를 거쳐서 우리나라 최초의 가전체 소설로 밝혀졌고 현재 영인본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에 반씩 보관 중이며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있다.

서하공께서 돌아가셨을 때 많은 현자들이 제문 및 묘지서를 쓰셨는데, 이인로는 서문에서 “애석하게도 하늘이 많은 날들을 허락하지 않아 저술한 것은 많지만 봉황의 터럭 하나를 보고도 죽히 아홉 종류의 날개 빛깔을 알 것이다.” 또한 “서하가 죽은지 20년, 배우는 사람들이 입으로 그의 시를 읽으면서 마음으로 흠모하지 않는 자가 없다. 장차 굴원 과 송옥의 반열에 두려하니 군자가 이른바 귀하고 장수한다는 것이 여기 있지 않겠는가.”

또한 제문에는 “이름은 태산이나 화산과 같이 불멸할 것이요, 재주는 북두칠성과 서로 다룬다.”하였다. 서하공의 묘소 또한 실전되어 수백년간 찾을 수 없었다. 18대손인 임재호는 서하공의 묘소가 실전되어움을 안타깝게 여기며 묘를 꼭 찾겠다는 결심으로, 당시 신씨, 안씨 소유로 되어 있던 곳에 성씨를 바꾸어 들어가 4년 동안 병어리 행세하며 머슴살이를 하였다. 두 집안이 서하공 묘소를 경계로 소유에 대한 다툼을 목격하고 김포 종인들과 함께 소유를 주장하다, 7년의 송사 끝에 고종황제의 어전판결을 받아 되찾았다. 실전된 묘소를 찾아 1886년 고종23년 10월 13일 파해처지고 흩어져있던 혼백을 모아서 제헌 충하고 분향을 올렸고, 이후 김포 종중에서 매년 정성을 바쳐 제향을 모시고 있다.

서하공은 우리 임씨의 족보사 에도 중요한 단서를 기록하고 있다. 서하문집 가운데 수록되어 있는 중추회음서 중에 “금년중추 하루 전날 이담지가 나에게 글을 보내와 하는 말이, 오늘 저녁에 술을 갖추어 명월아래 잔을 주고 받으며 우리집 고사를 다시 닦아볼까 하는데 자네도 제남(임운의호)의 후손이 아니던가 어찌 옛정을 잊을수 있겠나” 한 것으로 미루어 선조(임팔급)께서 당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동도 하셨다는 단서가 되었다. 학술적으로 서하문학을 주제로 1,50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실학적 철학사상의 논문 또한 다수 발표 되었다.

또한 전북 부안군에서는 군 행사로 매년 2월에 부안군 향교 주관으로 시제를 모시며, 충남 연기에서, 경북 예천에서도 서하공의 높은 국문학적 업적을 추모하며 군 행사로 시제를 모시고 있다. (사)한국문인협회는 시제 이후에 서하 문학을 기념하는 서하임춘 전국백일장을 열어 전국 각지의 학생 일반인등 1,000여명 이상 참가하는 성황을 이루고 있다.

현재 서하공 묘소는 우리 밀직공과 김포 후손들이 잘 관리하여 매년 (음)10월 15일 묘소에서 전국에서 참여하는 많은 후손들과 함께 시제를 올리고 있다. 이제 우리는 묘소의 관리와 시제를 정성껏 모시는 것 외에도 서하공의 문학과 사상을 널리 홍보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할 때이다. 서하공의 시와 글이 3천여편(법주사당두해지필인사지에서) 에 이른다는 내용에서 볼 때 이인로가 수집한 문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10% 정도이다. 더 많은 글을 찾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고 묘소를 찾는 후손과 문인들에게도 그의 문학적인 흔적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때에 서하문학에 관심이 많으시던 임종호 종중회장님께서 “대문호의 묘역주변에 문학비 하나가 없는 것에 늘 아쉬워 하시며” 발의하신 서하문학비 건립의 안이 2015년 초에 이사회에서 결의되었고, 부안임씨 중앙회(2015년 10월)에서도 결의되어 임종철(한미약품)이사를 서하문학비 건립 추진위원장에 임명하였다. 서하묘소 주변에는 어떠한 비석보다 화려한 석물보다도 훨씬 더 값진 문학비가 될것이다.

이제 묘소를 찾는 후손들에게, 서하선생을 존경하는 문인들에게, 또한 앞서 탐방한 어린학생과 일반인들에게도 좋은 의미와 교육이 되리라 생각하며 이번 문학비 건립결정이 앞으로 서하문학공원, 서하문학기념관 건립등으로 발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신선(神仙 媽祖)이 되신 우리 조상 임묵(林默)

비간공 탄신일 기념 시향을 마치고 중국의 조상 유적지를 탐방하는 마지막 날 마조 사당과 미주도를 탐방하였다. 마조의 동상과 사당은 중국 해안선을 따라 가장 많이 세워져 있고 대만에서도 많은 사당과 동상을 세워 제사를 지내고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의 수호신으로 숭배되고 있는 분이다.

임묵(林默)은 우리의 직계조상인 임온(林蘊) 7세손이다. 당나라 헌종(憲宗)때 동남쪽 연해안 일대 미주도(湄州島)섬에 이미 연년생으로 네 명의 아들을 둔 임씨 부인은 관세음보살이 그녀에게 무화가 한 알을 주는 꿈을 꾸고 임신을 했다. 14개월이란 오랜 임신 기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여자아이를 낳았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방안에는 아름다운 향이 가득한 채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시끄럽게 울기 마련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아이는 몹시 조용했다. 그래서 이름을 '고요하다'는 뜻의 '묵(默)'자로 지었고, 평상시에는 임묵낭(林默娘)이라 불렀다.

임묵낭은 일찍부터 철이 들고 머리도 총명했다. 하루는 부모가 절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였다. 어린 묵낭이 뜻밖에도 양손으로 합장하며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부모의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다섯 살 때 벌써 관음경(觀音經)을 줄줄 외우고, 날마다 절에서 퍼져 나오는 음악소리에도 심취했다.

묵낭의 아버지는 자식들을 데리고 주변 작은 섬을 찾아다니며 물고기를 잡았다. 이날도 형제들이 아버지를 따라 바다로 나가고, 오직 묵낭과 그녀의 어머니만이 덩그러니 남아 집을 지켰다. 그날 밤 어머니가 묵낭의 방안을 살피다가 그녀의 안색이 심상치 않음을 보고 흔들여 깨웠다. 하지만 아무리 흔들어도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다. 놀란 어머니가 딸의 어깨를 함꼐 흔드니 묵낭이 큰소리로 우는 것이 아닌가. 그제야 묵낭이 깨어났다. 그러나 그녀의 안색이 몹시 초췌해 보였다.

“왜 저를 불러들였어요. 그 때문에 제가 큰오빠를 사정에서 구해내지 못했잖아요.”

그녀의 어머니는 묵낭이 무언가에 놀라 정신이 잠시 나갔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아침 바다에 나갔던 아버지와 형제들이 돌아왔다. 하지만 묵낭의 큰오빠가 보이질 않았다. 알고 봤더니, 어젯밤에 한바탕 폭풍이 세차게 불어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졌는데, 한 여신의 인고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애석하게도 그녀의 큰오빠만 죽게 되었다는 것이다. 임씨 부인은 어젯밤 묵낭의 말투가 몹시 비장했던 사실을 떠올리고는 그녀가 말한 것이 모두 사실임을 깨달았다.

묵낭은 하루하루 자라서 어느새 혼인할 나이가 되었다. 부모 입장에서서는 하루라도 빨리 딸에게 맞는 배필을 찾아주고자 했지만, 정작 본인은 혼인할 마음이 전혀 없는듯 했다. 사실 그녀는 혼인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곳곳에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을 베풀면서 그녀의 명성은 점점 쌓여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에게서 신선술을 전해 받더니 그녀도 신선이 되었다.

그 후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등잔불을 들고 있는 여신을 보았는데, 그녀가 바로 마조(媽祖) 임묵낭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그녀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 베푼 수많은 일들을 기념하고, 또 그녀가 이곳에서 마을을 지켜주기를 희망하여 서로가 힘을 합쳐 마조 사당을 세웠다. 이후로 마조 사당의 향불은 끊어지지 않았고, 기도 또한 매우 영험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가 여기에 와서 빌면, 곧바로 자식을 접지 받을 수 있었다.

송나라 때 전염병이 온 마을을 휩쓴 적이 있었다. 그때 마조가 나타나 사람들에게 많은 샘물을 길러와 마시면, 약을 먹지 않고도 병이 나을것이라고 알려 주었다고 한다. 마조가 행한 기이한 일들로 인해 역대의 황제들은 앞 다투어 그녀에게 봉호를 하사했다. 부인과 천비, 천후에 이르기까지 그녀에게 부여된 봉호는 그녀의 지위와 명성을 더욱욱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청나라 건륭황제로 부터 천상성녀 마조라는 칙봉과 칙명을 받으셨다.

마조 곁에는 두 명의 수호신이 있었다. 천리안(千里眼)과顺风耳(順風耳)가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원래 은(殷)나라 주왕(紂王)의 부하였는데, 주(周)나라 무왕(武王)과의 전쟁에서 죽었다. 둘은 죽어서도 이승을 떠나기 아쉬워하며, 도화산(桃花山)을 차마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조가 그곳을 지나가는데 그들이 길을 가로막고 못 가게 했다.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마조가 둘을 제압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도(道)를 구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안 마조가 그들을 거두어 자신을 호위하도록 했다고 한다.

현재 미주도 마조사당 및 기념관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늦은 봄 피꼬리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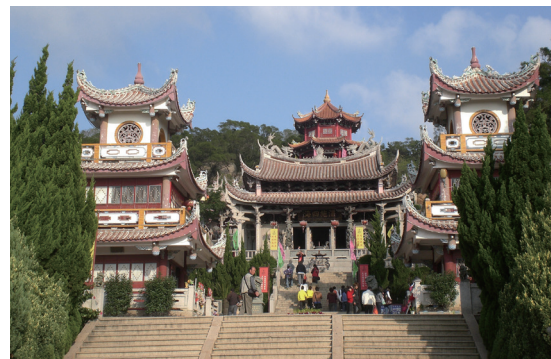
서하(西河) 임춘(林椿)

전가(田家)의 3월은 보리가
한창 지랄 때
푸른 나무에 피꼬리 소리 처음 들었네.

서울에서 꽃구경하던 나그네
알아보는 듯
은근히 물어대어 그칠 줄을 모르네.

暮春聞鶯 모춘문앵

田家三月麥初稠 전가삼월맥초조
綠樹初聞黃栗留 녹수초문황률류
似識洛陽花下客 사식낙양화하객
殷勤百轉未能休 은근백전미능휴



위대한 문인 서하공 임춘(西河公 林椿) 할아버님

임종철



“선생은 문장으로는 고문(古文)의 풍모를 얻었고, 시(詩)로는 이소(離騷)와 대아(大雅)의 풍골(風骨)을 얻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 벼슬 하지 않은 사람으로 세상에 뛰어난 사람은 선생 한 사람일 뿐이다. 선생이 죽은 지 20년인데 배우는 사람들 가운데 입으로는 선생의 시를 읊지 않는 사람이 없고 마음으로는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장차 굴원(屈原)과 송옥(宋玉)의 사이에 선생을 자리매기고자 한다.

군자가 귀하면서도 장수한다는 것은 이를 말함이라”(李仁老, 西河先生文集 序文) 아무리 절친한 친구라고 해도 찬사가 지나치면 헛된 말이 되고 마는 법인데 당대의 유명인사가 이토록 칭찬을 아끼지 않은 까닭이 무얼까 생각해 봅니다. 누구라도 죽은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추고 또한 서문이란 대개 칭찬이 덧붙여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인로의 칭찬은 칭찬이라기보다는 진심으로 서하(西河) 임춘(林椿) 선생의 글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자리매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의 문장을 고문(古文)에 비견하고, 선생의 시를 중국 역대 시집들 가운데 걸작 중 걸작인 <이소(離騷)>, <대아(大雅)>와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선생의 존재를 중국 역대 시인 중에 절개를 지킨 굴원(屈原)과 그 제자로서 아름다운 글로 손꼽히는 송옥(宋玉)의 사이에 자리매기고 싶다고 한 것은 그만큼 선생의 글과 사람됨이 위대함을 정확하게 평가하려 했던 것일 터입니다. 실제로 선생의 문집을 보면 글들이 시든 산문이든 진심과 진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산문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형식으로 세상을 풍자한 국순전(술 이야기), 공방전(돈 이야기) 등 참으로 모범적인 글들이 우여곡절 끝에 찾아져 전해져오고 있는 것이 천만다행으로 우리민족 문학사에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짧은 글에서나마 선생의 시를 잠깐 소개 드리고 싶습니다. “보잘 것 없는 몸 봄날에 젖어 / 안방 베개머리를 자주도 찾네 / 서늘한 밤 시 쓰는 탁자에 바람이 오락가락 / 노래하는 누각에 해는 저물고 잔뜩 술에 불잡혀 버렸구나 / 한바탕 봄꿈 떠돌이 생애에 비추어 보며 / 천리 먼 길 이별의 한을 전하네 / 세상 근심 접어두고 다시 한가롭고자 하니 / 요즈음 들어 돌아드는 곳은 옛 숲속 샘물이네” (<꿈을 읊으며(詠夢)>, 필자 줄역. 한자 실력이 모자라 기존 번역본들을 참고하여 시의 맛을 살려 번역해 보았습니다) 과거 시험에 연거푸 떨어져서 낙향하여 쓴 시로 추정되는데, 선생의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보입니다.

선생은 고려 정중부의 무신란에 화를 입고포의(布衣베옷, 벼슬이 없는 선비)로 세상의 어지러움을 개탄하는 심정을 시와 산문으로 표출하곤 하셨는데, 단순히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하기보다는 역사적 사실들을 인용하며 비견함으로써 교훈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시와 산문에 고사들을 많이 인용하였다고 하여 선생의 글을 펴마한 사람도 있지만, 선생의

관직에 나아가 직언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역사를 인용하지 않고는 현실의 부당함을 비판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선생은 자신이 포의(布衣) 처지였다고 해서 과거 시험에 낙방한 것까지 불공정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한사람의 문인으로서 세상에 대한 심정과 비판을 글로 표현하곤 했던 것이지요.

그이 절친한 친구 이인로(李仁老)가 무신란을 피해 승려가 되었다가 환속하여 과거에 급제하자 축하하는 시와 산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늪름하고 빼어난 필력 백전백승의 위엄이니 / 이미 보았듯이 세 차례 시험을 차지하여 현위(賢闈)에 뽑혔구려 / 함께 놀던 시험장에서 그대 먼저 급제하고 / 나는 웃으며 산천 가리키며 홀로 돌아왔네 / 바람 거세게 일으키며 봉새는 북쪽을 따라서 날아가고 / 밝은 달빛에 놀란 까치는 남쪽으로 날아가네 / 산골 아내는 눈처럼 희어진 머리에 놀라네만 / 나는 오로지 올해도 포의(布衣)를 입을 뿐이네” (장원급제한 미수 이인로를 축하하는 시<作詩賀李壯元眉叟>, 필자 줄역)

과거시험에 급제하는 것과 시문을 잘 쓰는 것은 사실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선생이 과거 시험에 여러 번 낙방하셨다고 해서 그 분의 글이 갖는 가치와 위대함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어쩌면 선생이 관직에 나서셨다면 무인패권 시대에 무슨 보람을 찾으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조상 중에 백호(白湖) 임제(林悌) 선생 같은 조선시대 대문호가 계시지만, 서하(西河) 임춘(林椿) 선생은 그보다 앞선 고려시대 대문인이신데도 세간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우리 민족 문학사에 위대한 문인으로 자리매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분의 문학사적 위상을 되찾아드리는 것은 우리 자손들의 의무일 것입니다.

필자인 저는 스스로 시를 쓴다고 하면서도 종종 일에 참여하기 전에는 우리 할아버지 가운데 이같이 위대한 문인이 계신 줄은 몰랐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앞서고 자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생은 진사 시험에 합격했다가 고려시대 정중부의 무신란(1170년)을 만나 온 집안이 화를 당하고 향년 30세(33세설, 35세설도 있음)로 돌아가셨고, 나중에 봉익대부 삼사사(奉翊大夫 三司使)에 추증되고 ‘절의(節義) 시호를 받으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하(西河) 임춘(林椿) 선생은 관직보다는 “위대한 문인”으로 우리 민족문학을 빛낸 조상으로 모시는 것이 자손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마침 부안임씨 중앙총친회 임종호 회장님의 발의로 서하공 할아버님의 묘역 개선사업을 하게 된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나아가 서하공을 기리고 선양하는 사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중인 소식



임병호

김포통진읍 서암리 출신으로세무공무원으로 38년간봉직하다가 금년6월말 명예퇴직(부이사관)

- 국세청국세세원담당관실 사무관
- 역외탈세담당관실 서기관
- 금융정보분석원(FIU)심사분석1과장
- 서대전세무서장
- 서인천세무서장
- 현)가현텍스 대표세무사



임종광

김포월곶면 개곡리 출신. 김포시청에서 35년간 공직생활을 해왔으며 그동안 기획감사담당관, 공보관, 주택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경제환경국장, 자치행정국장을 거쳐 현재는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로 근무중